♧복음 퀴즈♣

1.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누구를 만났나요?

① 빌라도 ② 부활하신 예수님

③ 경비병 ④ 마리아 막달레나

2.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었나요?

① 당신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

② 엠마오로 가는 방법

③ 다른 제자들의 위치

④ 천사의 말

3.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갔나요?

① 갈릴래아 ② 엠마오

③ 예루살렘 ④ 사마리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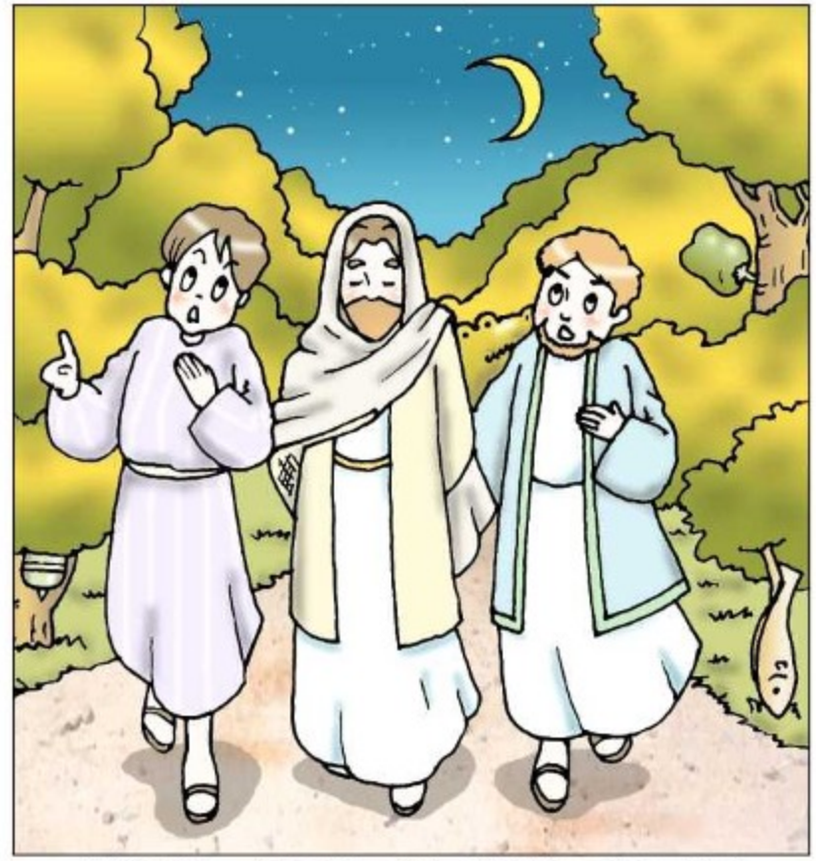
4.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말을 채워보세요.

"그 일이 일어난 지도

벌써 _____ 째가 됩니다."

응모 날짜 마감 4/18(토), 19(일) 15시~21시까지
★응모 시간 확인 / ☆카카오채널로 응모해주세요!

숨은그림찾기~☺



숨은그림 - 물고기, 피망, 복조리, 팽이, 악어

◇ 되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,
예수님의 제자로서 선서문을 작성해보아요!!◆

나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서
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

....

..... 할 것을 다짐합니다.

◎ 우리친구 퀴즈 응모 방법!!

▷ 카카오톡 친구찾기 "원주교구 우리친구" 검색 + 채널추가하기

▶ ★응모방법(채팅창사용) - 전체페이지 사진 캡쳐 전송
-응모 시간(토,일 15시~21시)까지만 응모가능

우리친구

제 2226호
2026. 4. 19.

부활 제 3주일

성당 학년

이름 세례명

강원도 원주시 원일로28(인동) 천주교 원주교구청 청소년사목국
033)765-4228 e-mail: wjch-02@hanmail.net

1독서 여행

✝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 2,14.22ㄴ-33

오순절에, [14]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. "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,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. 내 말을 귀담아들으십시오. [22] 여러분도 알다시피,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.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. [23]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,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. [24]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.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[25]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. '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. [26]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.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. [27]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[28]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.' [29] 형제 여러분,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. [30] 그는 예언자였고,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. [31]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'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.' 하고 말하였습니다. [32]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. [33]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,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."."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"주님, 당신은 저에게
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."
<화답송>

2독서 여행

✝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.1,17-21

사랑하는 여러분, [17]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, 나그네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. [18] 여러분도 알다시피,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,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, [19]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. [20]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,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. [21]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,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여행

✝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24,13-35

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[13]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. [14]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. [15]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,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. [16]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. [17]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"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?" 하고 물으시자,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.

[18] 그들 가운데 한 사람,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, "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?" 하고 말하였다.[19] 예수님께서 "무슨 일이냐?"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. "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.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,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. [20]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,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. [21]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.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. [22]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.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, [23]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,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 주더랍니다. [24]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,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." [25]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"아, 어리석은 자들아!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? [26]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?" [27]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. [28]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,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. [29] 그러자 그들은 "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.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."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. [30]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,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. [31]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.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. [32]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. "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!" [33]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, [34] "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." 하고 말하고 있었다. [35]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